

동구, “새롭게 태어난 ‘충장축제 퍼레이드’가 온다”

광주 동구(구청장 임택)는 충장축제 메인 퍼레이드를 구성할 관내 13개 동 주민과 13명의 작가가 만나 동별 ‘모뉴먼트(기념 상징물)’ 주제 선정을 완료하고, 퍼레이드 모뉴먼트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구 13개 동의 역사성과 콘텐츠를 담아낼 주제와 작가는 ▲충장동 ‘패션과 결혼식’(이조흠) ▲동명동 ‘동리단길 환승카페’(조유나) ▲계림1동 ‘헌책방과 문화’(송일근) ▲계림2동 ‘푸른 철길의 사계’(문병탁)

▲산수1동 ‘나무전거리’(윤용신) ▲산수2동 ‘청바지 퍼레이드’(유지원) ▲지산1동 ‘사과나무, 장미’(이정기) ▲지산2동 ‘지산유원지, 소풍’(박아론) ▲서남동 ‘길길마을’(전민준) ▲학동 ‘학동이 어메 소원 파리’(음선희) ▲학운동 ‘미술 여행’(엄기준) ▲지원1동 ‘개구리 마을’(박기태) ▲지원2동 ‘광주천’(안치홍)이다.

사전참여 퍼레이드 ‘추억은 방울방울’은 버블 아티스트와 유량단들이 5·18민주광장과 충장우체국 쪽

에서 시민들을 메인 퍼레이드 장소로 이끌 예정이다. 국민참여 퍼레이드에서는 전국의 전문 공연 퍼레이드 팀들이 거리 퍼포먼스와 이동식 무대를 활용한 무대 공연을 펼친다.

메인 퍼레이드 ‘추억 나르기’는 동력 장치의 도움 없이 오로지 13개동 주민들의 힘으로만 모뉴먼트를 운반하는 장관을 선보인다. 금남공원에서 전일빌딩245(금남로 무대)까지 이동하며 모뉴먼트 제작과정을 영상으로 송출한다. 기억을 의미하

는 모뉴먼트부터 제작과정의 추억까지 함께 공유하며 대동의 의미를 되새긴다는 구상이다.

퍼레이드의 하이라이트는 점화구간에 모여 모뉴먼트를 태우는 ‘불사르다’를 부제로 하는 점화 의식이다. 근현대사의 상징인 금남로에서 뜻을 모아 모뉴먼트에 불을 지피며, 좋은 기억은 추억으로 남기고, 잊고 싶은 기억은 잊힐 수 있도록 특별한 의식을 치른다는 복안이다.

/이유빈 기자

남구, 재난시 ‘3-24H 시스템’ 가동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태풍과 흑한 등 각종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3시간 이내 취약계층 주민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24시간 이내 응급조치를 마무리하는 ‘3-24H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남구에 따르면 ‘3-24H 시스템’은 가족간 지원 체계가 미약한 1인 가구 중 기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다. 흑서기 및 흑한기 시기에 각종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복지 지원 대상으로 관리되지 않은 위기 가구를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서다.

기존의 돌봄 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된 복지 취약가구는 관내에 약 3천160명 가량인 것으로 파악된다. 남구는 이들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내 17개동 민간단체 운영 인력과 각 가구당 결연을 맺어 안부 확인 및 사전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취약계층 가구와 결연

을 맺은 주민은 577명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각 동에서 활동 중인 위기가구 발굴단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7979봉사단, 복지통장 등으로 활동하는 주민들이다. 결연을 맺은 주민들은 취약계층 주민 1천232명의 안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도맡는다. 1인당 평균 2~3명의 주민과 결연을 맺어 전화 또는 가정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3-24H 시스템’은 흑한기 시기에 폭설과 한파 등 기상이변이 발생할 경우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전망이다. 또 태풍과 흑서기 시기에도 취약계층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팀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구 관계자는 “현재 모의 시험가동을 통해 사전점검을 마친 상태이다”며 “추후 이상기후로 특보 상황이 발생될 경우 시스템을 가동해 일상생활의 문제 여부 등을 단시간에 파악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희태 기자

서구, 독감 무료 예방접종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20일부터 2023-2024년 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예방접종은 안전한 접종을 위해 대상군별, 연령별로 접종 시기를 분산했으며, 신분증 등을 지참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가능하다.

접종은 인플루엔자 4가 예방접종 1회가 지원되며 ▲10월 5일(생후 6개월~13세 1회 접종 대상), 9월 20일(생후 6개월~9세 미만 2회 접종 대상) ▲10월 5일(임신부) ▲10월 11일(75세이상) ▲10월 16일(70~74세) ▲10월 19일(65~69세)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서구는 만 50~64세 장애인·의료급여수급자·국가유공자 6천 460여 명의 관내 취약계층에 대해서 11월 1일~12월 9일 동안 서구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한다.

위탁의료기관 현황은 서구보건소 홈페이지 정보마당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접종 초기 혼잡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령별 접종기간을 분리하는 만큼, 해당 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위탁의료기관 방문을 부탁드립니다”며 “안전한 예방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가경 기자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 보건소 송정보건지소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동네 건강상담소'로 나선다. △진료실(고혈압, 당뇨, 이상지혈증 등) △요일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건강증진(혈압, 혈당, 체성분 분석) 및 상담 등을 운영한다. /광산구청 제공

광산구 송정보건지소 ‘우리 동네 건강상담소’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 보건소 송정보건지소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동네 건강상담소’로 나선다.

△진료실(고혈압, 당뇨, 이상지혈증 등) △요일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건강증진(혈압, 혈당, 체성분 분석) 및 상담 등을 운영한다.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21일부터 매주 화·수·목요일 연다.

화요일은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와 연계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교육’을 통해 대상자의 당화혈색소, 콜레스테롤 4종을 측정하고 고혈압, 당뇨 관리 방법 등을 교육한다.

목요일에 하는 ‘다 함께 쓰리고(놀이, 배우고, 건강하고)’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다. 맨손체조, 근력운동, 탄력 밴드, 짐볼을 이용한 전신운동 등 다양한 체조로 어

르신의 활력과 건강증진을 돕는다.

금요일은 광산구 장애인체육회와 ‘함께행복, 함께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킥볼링(얼음판이 아닌 곳에서 즐기는 사계절 컬링)’, ‘셔플보드(큐를 사용해 원반을 이동시켜 득점을 겨루는 운동)’, ‘한궁 등 다양한 신체활동을 즐기며 건강의 변화도 측정하는 내용이다.’

/서기만 기자

북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페스티벌

광주 북구(구청장 문인)가 19일부터 내달 3일까지 주민자치센터 간 프로그램 성과를 공유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페스티벌은 북구 28개 동 주민자치센터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직접 보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와 주민 간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전시와 공연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전시 분야는 12개 동이, 공연 분야는 21개 동이 참여한다.

먼저 작품전시회는 오는 19일 금봉미술관에서 개막해 내달 3일까지 제1~3전시실에서 민화, 서예, 종이공예 등 14개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열정과 정성이 담긴 220여 점의 출품작이 전시된다.

또한 오는 21일에는 북구종합체육관에서 북구주민자치협의회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지역주민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댄스스포츠, 고전무용, 국악, 사물놀이 등 23개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준비한 흥겨운 공연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문인 구청장은 “바쁜 와중에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페스티벌 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북구주민자치협의회, 각 동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축제가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수강생들이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선보이는 자리인 만큼 많은 주민들이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공정과 상식